

## 山蔘採取人の 風習

배 병일 譯\*

譯者 註 : 이 연구는 산삼채취인의 관습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첫 번째의 것으로 日本人인 이마무라(今村 昶)가 1931년 청구학총 제 6호에 게재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인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집단인 심메마니의 생활을 본 것이기 때문에 다소 피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전업적인 심메마니가 거의 없고 따라서 그들의 관습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조사자료는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또한 譯者が 1992년 6월(1992.6.21, 심메마니 박동인씨, 71세)과 7월(1992.7.8, 심메마니 김왈수, 김동빈, 이돈호, 탁주혁씨)의 강원도 오대산, 설악산의 현지조사에서 얻어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譯者の 위 조사보고는 별도의 지면을 빌려 게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본 제목으로 부쳐 기술하는 것은 그것들이 청대에 만주족의 풍습을 전하여 온 것이 오늘날에 잔존한 것으로 믿는 고로, 또한 융흥시의 청조와 말기의 명조와의 관계는 인삼을 도외시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일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청조 및 조선의 문헌에는 기타 외교 및 정치상 인삼에 관한 기사가 많고 그들 사항을 해독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도움과 참고의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1. 산삼 및 그 산지

산삼이라는 것은 하등의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생의 인삼으로, 오늘날 재배하는 인삼과는 다소 형태를 달리하지만 식물학상의 기술은 본편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현재 일반의 관념은 산삼을 일종의 특수한 물건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산출이 많았던 과거에는 산삼이야말로 인삼의 본체로서 그 채취도 쉽게 이루어져 오늘날의 산삼채취와 같이 변태의 직업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식물의 원산지는 중국의 북부와 조선으로 그 외에는 절대로 산출되지 않는다. 미국의 록키산맥의 일부 및 캐나다의 일부에 일종의 것이 산출되지만 학명 조선인삼과는 동목이종의 것으로 학명 아메리카인삼으로 불린다. 중국에서는 고래 산서성의 대행산맥의 전부 및 성경, 길림, 흑룡의 각지에서 산출되고 특히 산서 로안부 부근의 것은 상당삼으로 불리어 당송의 연대에 있어서는 최상품으로 쳐주었으나 명대에 와서는 조선산의 품질이 좋다고 점차 인정되기에 이르러 성가가 떨어지고 또한 남획때문에 산출량이 감소하고 드디어 절멸하게 되어 청의 후기에 이르러서는 전혀 인삼과는 별종 토산의 식물로서 로삼의 이름으로 매매하기에 이르렀다. 만주산은 조선산보다 나쁘지만 그 산출량이 많아서 요삼의 이름으로서 명 이래 중국 사백여주의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였지만 이 역시 격심한 남획과 산림개발때문에 청의 중기부터 체감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 길, 흑 삼성의 일부분의 심산에서 약간의 수량을 산출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에서는 경상 전라중 해안에 면한 비교적 온난한 산악을 제외하고 십삼도 각지의 산림 대부분에 산출되지 않는 지역이 없고 그 총산출의 10분의 1, 2를 자국의 수요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당송이래 현재까지) 일본(아시카가 중기부터 토쿠가와 말기까지)에 수출하고 빈혈고갈된 조선의 재정 및 일반경제에 보익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역시 남획과 산림남벌때문에 많이 감소절멸하게 된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임원십육지, 각읍지등의 기재에서 볼 수 있다. 현재에는 가까스로 아래의 지역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데 불과하게 이르렀다.

평안북도	자성군	이들 중에서 이 2군이 최고로 많이 생산하고 현재 전 조선의 주산지이다. 다음으로 생산하고 그 중 중남면, 용림면, 동서면이 가장 많다.	산삼채취에 가장 힘을 쏟는 곳
	후창군		
	강계군		
	위원군	이들 지역은 생산량은 몹시 적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삼채취량은 적지만 매년 입산자가 있는 곳.	
	초산군		
	회천군		
	벽동군		
평안남도	영원군		
함경남도	장천군		
	갑산군		
	산수군		
함경북도	무산군		

이외에 강원도 인제, 추양 기타 금강산맥 서쪽 지맥에는 겨우 5년에 한 뿌리, 10년에 한 뿌리라는 정도로 발견되는 것도 우연한 발견으로 직업적 산삼채취인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다.

원래 인삼은 원시적 활엽수림 아래가 아니면 발생되지 않는 것이므로 남벌에 의한 임상의 황폐변화에 의하여 그 흔적이 끊어지는 것은 자연의 수로서 예를 조선에서 보면 이조의 중기까지는 전조선에 산삼을 생산하는 주군이 백개이상 있었으나 이백여년이 흐른 지금에는 겨우 앞서의 십이군으로 감소된 것은 주로 산림의 남벌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해야만 한다.

((주산삼은 씨앗이 자연상태로 떨어졌거나(天種山蔘) 까마귀, 까치, 꿩등이 주우가먹고 깊은 산 속에서의 배설, 자연상태로 자란 것(地種山蔘)을 뜻한다. 심매마니가 산삼씨앗을 산에 심었다 캔 것은 山養蔘, 인삼씨앗을 산에 심어 캔 것을 私養蔘(사양장뇌), 밭에서 자란 인삼을 산에 옮겨 심었다가 캐낸 것을 씨장뇌(圖

蓼)라고 하여 진짜 산삼과는 엄격히 구분되고 약효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산삼은 형태면에서 蘆頭(뇌두,요두),體身(약통),蓼尾(꼬리)등 3부분으로 나눈다.오래된 산삼일수록 요두가 많고 새로 형성된 뿌리가 여러가닥으로 연결된 형태를 이룬다.또한 오래된 것은 산삼의 머리부위에

해당하는 蓼莖에 턱수라고 부르는 가는 뿌리가 밑으로 뻗어 있다.약통은 여성의 피부를 만질 때와 같은 촉감을 주며 뿌리는 가늘면서도 길고 잔뿌리가 적다.뿌리에는 콩 과식물의 뿌리 흑박테리아 같은 모양의 흑이 좁쌀알 크기로 매달려 있다.깔깔한 감을 주는 이것을 옥주라고 부르기도 한다.이 밖에 산삼은 모두 몸통의 위쪽부분에 가락지같은 등근테(삼테)가 있는데 오래될수록 굵고 뚜렷하며 몸통의 위쪽에서 3분의 2정도까지 생생겨난 것을 가장 좋게 여긴다(월간 인삼과 건강,1987.7.15면)))

## 2.산삼채취의 시기

만주와 조선에서는 다소 시기가 달리하여 만주는 추위가 일찍 오는 관계로 다소 일찍다.조선에 있어서는 이조 중기부터 산삼채취를 반관영으로 이루어져 그 산지에서 인부를 징발하고 또한 군인을 사역시켜 채굴케 하였다.그 시대에는 채취시기를 일년 삼기로 나누었다.1)묘절—봄철에 인삼이 싹을 튀우고 점차 생장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기 2)단절—여름 인삼의 열매가 붉게 익고 가장 구분하기 쉬운 시기 3)황절 또는 초절—가을 인삼의 잎이 누렇게 변하는 시기.이 황절은 일종의 색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채취하는데 숙련된 자의 눈에는 멀리부터 쉽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상의 3기를 쫓아 입산하더라도 현재는 음력 칠월경부터 서리가 처음 내리는 때까지 즉 위의 황절에 해당하는 시기에만 입산한다.그리고 입산의 날을 잡는데도 날의 길흉에도 관계있고 또 그들이 제사하는 귀신의 강신일에도 관계있다.

### 3. 채취인

산삼채취자는 사오인 내지는 십여인의 사람을 결합하여 일단을 만드는 것을 상례로 한다. 즉 두령주—어인이라 부른다. 제일 권력을 가진다. 취사담당자—정채라고 부른다. 어인다음의 권력을 가진다. 부수하여 가는 자—이들 중에서 연료를 취재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와 제사의 준비를 하는 자를 선정한다. 처음으로 새롭게 입산하는 자를 소대인이라 부른다.

이들 중 어인은 그 일단의 수뇌로서 절대권력을 가지고 다른 자들은 능히 이에 복종하고 관습법적인 제규는 불문율로서 엄연하게 이루어져 조금도 분란이 없다. 어인은 오랫동안 입산하고 그 업의 숙련을 축적한 자로서 필자가 강계읍에서 본 건의 조사를 위하여 탐문한 조병준씨의 경우 아버지대부터 이대 어인을 계승하고 십육세때부터 올해 사십구세의 오늘날까지 입산 실로 삼십삼년 중국 조선의 인삼이 난다고 하는 산이라고 하는 산은 발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고 한다. 비록 문자를 알지못하더라도 사람의 인품이 선량 소박하고 자연의 선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년간 인적이 끊긴 심산유곡을 출입하며 무의식적인 자연의 수양에 유래하는 것이리라.

어인의 수는 강계부내에만도 삼백여인이 있다고 하고 조선내의 총수는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일은 가장 사행적이어서 하루 아침에 좋은 운을 만나면 일거에 수천원을 얻을 수 있는 대신에 한달여에 걸친 고생이 헛되고 맹전 한푼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그것을 각오하고 그 기간 희망과 광명의 꿈에 사는 만큼 즐거움도 있다.

또 근소한 제사비 분담외에는 큰 비용을 필요치 않고 자택에 있거나 입산하여도 식사는 동일한 것이고 끝내 한근의 아도물도 얻지 못하고 돌아와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또 다음해 행운이 오리라는 꿈에 살고 즐기는 극단적인 운명낙천자이다.

#### 4. 산삼채취의 방법 및 관습

##### (1) 입산전의 준비

###### 단체의 편성

매년 입산기가 가까와지기 전에 일인의 어인을 중심으로하여 오육인 내지 십수인이 입산의 약속을 하고 단체를 만든다. 이 약정성립 후에는 여하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그 약속을 무겁게여겨 기일전에 탈퇴하고 또한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한다.

###### 입산자의 제제목록

입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수차례 목욕을 하여 신체의 청정을 유지하고 여자와의 동침을 피하고 또 나쁜 음식을 피한다. 옛날에는 절대로 어육 수육을 먹지 않았으나 근시에는 개고기와 하돈의 고기만을 금한다. 하돈은 압록강하류에서 잡히는 고기인데 강돼지를 말한다.

###### 복장 휴대품 식량

머리에 쓰는 것—종이를 꼬아 만든 것으로 위에 옷칠을 한 것으로 해수욕용의 밀짚모자 형태로 근래에는 맥고모자를 대용한다. 착의—가벼운 옷차림 2벌, 한벌은 입산시 입고가서 작업복으로 하고 한벌은 산의 움막으로 돌아 올 때 바꿔 입는 용, 갈아입을 때 젖은 것을 불에 말린다.

각반 2절레—하나를 착용, 하나는 예비용. 원래는 짚신이었던 것을 얼마전부터 일본제인 각반을 이용한다.

###### 나무지팡이—한개

나무막대기—딱딱한 나무로 만들고 길이 1자, 구경 5푼, 앞쪽은 뾰족하여 인삼을 캐낼 때 사용. 인삼은 철을 싫어 한다.

###### 성냥 및 나무를 벌목할 칼

배낭—나무섬유로 짠 잡동사니 도구 및 인삼을 넣기 위하여 사용

식량—입산기간을 15일로 가정하면 1인 백미 조선말로 한말여, 1개월로 하면 2말.

추운부락 사람들은 쌀을 조나 옥수수로 대신한다. 된장 간장 약간, 석수어(?) 소금간한 것 약간, 기타 취사음식도구 약간산에 있는 6신당에 제사드릴 공물

살아있는 돼지 1마리—이것은 산에서 제사드릴 때의 공물용으로 끌고 갔으나 근래 인삼이 많지 않아 제사의 공물을 생략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다.

## (2) 날의 점복 및 출발전의 제사

이들은 사행에 생활하는 자의 통유성으로 가장 미신에 집착한다. 고로 그 출발에 있어서도 날의 길흉을 걱정하여 점쟁이에게 의뢰하거나 어인 스스로 점을 보아 조선민력(음력)에 의하여 출발의 날짜를 잡고 그 날은 대개 복날기간으로(그들은 중복 하루를 지나면 하루밤 사이에 인삼의 열매가 붉게 익는다고 믿는다) 또한 그들이 제사지내는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에 맞춘다. 이들은 출발전야부터 제사를 집행한다. 그 상인 귀신은 이들이 거주하는 부락에

부락공동으로 숭배하는 신이고 그 신체 혹은 큰나무이기도 하고 암석이거나 또 사당을 가진 도교 불교 기타의 원시신앙신으로 일정하지 않다. 이들 신에게 비는 것은 요컨대 부락의 수호신에게 입산출발을 고하여 안온가호와 수확의 많음을 기원하는 취지로 행한다. 강계읍에는 남문밖에 있는 당신(무녀의 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원래 사당이 있었으나 몇년전 홍수 때 유실되고 재건축을 하지 않아 오늘날은 그 유적만 남아 있고 그곳에서 제사지낸다.

옛날 수확이 많을 때는 그 제사는 이틀간 성대하게 하고 부락의 사람들 일동을 초대하여 돼지 여러마리를 잡아 향응하고 부락사람들은 끝내면서 올해에는 인삼이 풍작하라고 일제히 장단을 맞추고 문출의 연기를 빌었으나 오늘날은 하지 않는다. 공물로서는 닭 1마리, 쌀밥, 말린 생선 한줄—독로강의 농어를 최고로 쳤으나 이것이 입수곤란한 경우 기타의 강물고기인 쏘가리, 잉어, 붕어를 사용, 종이 9매—산에 가지고가서 제사 기타에 사용한다. 향, 밀초

공물을 바치면 다른 사람은 옆드리고 어인은 일어서서 제문을 낭독한다. 제문

은 원래 종이에 쓰야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문필에 어두운 자가 많고 대개 그 문장을 암송하기 때문에 외운다.

이 때에 일동은 3번 절한다.

### (3) 출발 및 일에 종사하는 방법

#### 출발

그날 철야 촛불을 밝혀 제사드리고 일동은 이미 입산의 차비를 하여 이곳에 와서 집에 가지 않고 다음날 제사의 장소로부터 출발한다.도중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중 여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특히 앞길을 여자가 가로지르는 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만약 앞길에 여인이 있다고 하면 이 방향으로 입산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때 여자는 길 옆으로 피하는 것을 예로 하고 이 때 여인은 여자에 대하여 치마의 조각을 요구하면 여자는 막바로 이에 따라 치마의 뒷자락을 이빨로 찢어서 2-3인치를 준다.일행은 그것을 가지고 입산한다.

이러한 풍습은 고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고 여자의 생식기에 마력이 있다고 하여 숭배한 변화의 잔재로서 그 성기에 해당하는 곳의 의복에도 역시 마력이 있다고 하여 각종의 압승에 사용하는 토속풍습의 하나이고 그에 의하여 입산중 맹수악마를 방지한다는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전통시키는 것이다.

#### 입산 제 1일

입산 첫날 목적지에 도착한다.그 목적지는 어인외에는 그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선두에 서있는 어인을 따라만 간다.그 목적지는 어떤 인삼산의 꼭대기 근처에 있어 신당에 가까운 곳.전년에 소옥을 만든 곳이다.신당에는

#### 성인당—도교의 신

산신당—산림의 신이라고도 하고 혹은 호랑이신이라고 한다.조선에서는 호랑이의 별명을 산신이라고 한다.

지주당—토신이라고 하고 인삼채취는 흙을 파기 때문에 즉 토금을 범하므로 그



신을 제사하는 것. 묘지를 만들기 전에 토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여주당—산신의 일종 즉 여자 산신이라는 것? 고려사에는 여자산신이 나타나서 호경장군과 부부가 되는 신화가 있다.

어인당—산삼채취의 우두머리를 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신이 사람에게 올라 붙는 것을 말함일까?

수배당—산신의 숙료공?

이들 6신당은 번호순과 같이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설치되어 대개 인삼을 산출하는 산에는 조선의 서북부 및 만주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백두산에도 있다.

6신의 사당은 높이 3척내외, 넓이 각 2척의 적은 것으로 목판을 조잡하게 붙여서 만든다. 당내에는 신위에 신명이 쓰여있고 아무런 물건도 없고 혹은 조상모양의 돌을 세우거나 일정하지 않고 이 소당이 파손된 것을 볼 때는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 만들거나 보수한다.

이들은 산중에서 숙박하는 소옥을 이들 동료끼리의 은어로서 동연이라 한다. 이 동연은 신당에 근접한 장소를 택하여 산신당으로부터 10발(길)의 지점, 서남방향으로 동서 2개소에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혹은 일의 관계에 따라 그 이외에도 만든다. 동연에도 대소가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2곳에 만들어 그 중간에 큰 나무의 마른 뿌리를 태워서 비가와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 또 소옥 중앙 천정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밑에 불을 피우기도 했다.

입산 첫날 이 지점에 도착하면 먼저 부서진 동연을 보수하고 숙박준비를 정리하고 정재는 취사에 종사한다. 취사장은 동연의 일부를 갈라서 사용하고 정재의 누구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된다. 이어 가져온 종이 3매를 꺼내어 2장은 다른 데 1장은 취사장에 각 기둥에 붙여서 걸어 놓는다.

### 산의 제사

도착날 혹은 그 다음날 앞서의 6신당에 각 제사를 행한다. 그 공물 및 제문은 출발 때의 제사와 대동소이하고 오직 6신에게 종이 한장 씩을 바치는 점이 다르다.

이것을 작은 손의 제사라고 부른다.(큰손의 제사는 다음에 있다) 이 제사가 끝나고 일동은 드디어 작업에 착수,종사한다.

### 산삼의 수색

6곳의 신당의 제사가 끝나면 일동 그 장소로부터 산중을 향하여 진행한다.이때도 역시 어인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른 자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고 오직 묵묵히 일동 무언의 계율을 지켜 따라서 걷는다.대개 일정보호를 갖을 쯤 어인은 서서 큰소리로 연초라고 고향치고 제사를 시작한 이래 이때까지는 일동은 절대로 말을 할 수 없고 이 때 어인의 호령적 부르는 소리에 의하여 한 지점에 모여서 땅에 걸터 앉아서 서서히 담배를 한대 피운 후 지위의 순서에 따라 지난 밤의 꿈을 상세히 말한다.다음으로 어인도 역시 자기의 꿈을 말하고 이들을 종합하여 어인이 판단을 내려서 그 날 나아갈 방면과 지점을 정한다.이 꿈판단은 일종의 특별한 학문에 속하여 다년간 어인에 종사한 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먼저 한 두개의 예를 거론하면 사람 혹은 동물을 잡거나 혹은 살해하는 등의 꿈은 좋고,죽은사람 상에 관한 꿈도 좋고,대인이 죽는 꿈을 보면 큰 인삼을 얻고 소아가 죽는 꿈을 보면 작은 인삼을 얻는다고 판단한다.순사가 이 소를 끌고 가라고 명령하는 꿈은 산신이 순사의 모습을 대신하여 명령한 것으로 소는 인삼을 암시한 것으로 그저 끌고 가라는 것 뿐이라면 산삼을 발견할 수는 없고 이 소를 끌고 자택으로 데려가라고 순사가 말을 할 때라야만 인삼이 손에 들어온다고 해석하는 류.또 이마가 붉은 학이 품속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볼 때,학의 머리가 붉은 것인삼의 열매의 색,깃털의 흰것은 그 뿌리의 색이고 그 날 반드시 좋은 삼을 얻는다는 류등.그들은 입산시의 꿈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항상 꿈에 매우 신경을 쓴다.

### 인삼의 수색발견

일행은 어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산에 들어서 인삼을 수색하는데 일행 중 누구라도 멀리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눈을 움직여서 전후좌우

를 보며 전진한다.그 거리는 한사람과 한사람 사이가 다른 사람이 큰소리로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이고 만약 그 중에 한사람이 운 좋게 인삼을 발견했을 때에는 인삼을 보았다 또는 방초를 보았다고 큰소리로 연호하고 (방초는 만주 현대어로 인삼.옛날의 황초라고 말한 것의 사투리? 함경의 황초령은 인삼산의 의미일지도 모른다.그 외 함경 평안에 황초자가 있는 지명이 많다)이어서 지팡이를 그 인삼 근처에 세운다.이것은 무인도 발견자가 먼저 국기를 세워 점유의 뜻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만약 지팡이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앉는다.(지팡이는 입산 후 3일이 경과하면 산에서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것이 관습법이고 자택으로부터 지팡이를 휴대하지 않은 자는 입산 3일까지는 지팡이 없이 지낸다)이 때 소리에 따라서 일행은 그자리에 모인다.이 때 어인은 일행에게 명하여 모두 땅에 앉도록 한다.이어서 발견자로 하여금 혼자 그 부근을 구석구석 수색시킨다.그 이유는 인삼은 한 뿌리를 발견하면 반드시 그부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일 먼저 발견자에게는 그 한 범위의 둘레에서 자라는 인삼은 모든 채취권을 부여한다는 관습법에 기한 것이다.

발견자는 어인의 명령에 따라 그 부근 일원을 구석구석 검색하고 또 다시 인삼을 발견하였을 때는 또 다시 전과 같이 하고 만약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뜻을 어인에게 보고한다.이런 서식이 완료되지 않으면 다른 자는 일체 일에 종사할 수 없다.이어 어인의 명령에 따라 일동은 주위의 잡초 잡목을 뽑고 인삼을 중심으로 약 한 평가량의 면적으로 원형을 만들고 어인의 숙련된 손으로 그의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여 땅을 파기 시작한다.다른 자는 조용히 잡초 잡목의 뿌리가 모여 뒤엎킨 것을

꺼내어 어인의 일을 도운다.흙을 파기 시작하는 것은 거의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거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대개 산삼은 양에 의하여 거래를 하는 고가품일 뿐만 아니라 작은 뿌리가 많은 것을 좋은 품질로 하기 때문에 모발 같은 작은 뿌리도 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용의주도하게 들어내야 한다.파내는 것을 끝내면 석의라고 부르는 땅에 널리 퍼져 있는 거친 이끼의 몇 인치를 들어내어 그것을 썬 후 상하에 나무껍질로 덮여

운 후 작은 새끼 줄로 매어 발견자의 배낭에 넣어 휴대한다.그날 동연에 돌아오면 그 현품을 용이하게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매립하여 숨겨둔다.이에 앞서 인삼 잎의 문이라고 하는 장소의 방향이나 또는 열매의 방향에 의하여 다음날 향할 방향을 점친다.

위와 같이하여 큰인삼을 획득했을 때는 일동은 동연에 모여 큰손의 제사라는 것을 집행하고 육신당에 대하여 어예의 뜻을 표한다.이 제사는 작은 손의 제사보다는 공물이 많다.

초산군 동부의 채취방법은 전술한 것과는 다소 다르다.그 방법은 십수인이 불규칙한 횡대를 이루고 산중을 전방으로 하여 나아간다.일동은 끊임없이 위,와 하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음성을 높이 지르며 간다.이곳은 곰의 서식이 많고 곰은 멀리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멀리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갑자기 곰을 놀라게 하면 거꾸로 반항하고 돌진해서 사람을 해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그 해를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5.단체원상호의 계약 및 덕의

인삼채취단은 그 이익을 어떻게 처치하는가에 대하여는 보통은 발견자가 전부 이를 획득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도 그 배분에 관여치 않는다는 약속을 가장 많이 행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어인도 역시 하등의 보수를 받지않고 따라서 그 획득한 인삼의 가치감별,중매인에게 매도하는 흥정등 있어서도 반드시 그 방면에 숙달된 어인의 손을 번잡게하더라도 일전의 보수도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이 때 한 뿌리도 채취하지 못한 다른 중간의 자들은 추호도 시기심도 없이 담담하게 있는 것은 정말 감탄할만한 미풍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획득물 전부를 일행의 소유로 하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몫을 정하여 두는 등의 예외는 있더라도, 한 쪽의 서면도 주고 받지않고 구두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그 사이에 하등의 내분이 일어나는 법이 없고 그 외 그들

사이에는 여러가지 불문율이 있고 어느 것도 잘 준수되어져 위배하는 자가 없다는 미풍이 유지된다고 한다.